

개교 68주년 기념 칼럼

지도자 중의 지도자 돼라



공영일 법인이사장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돼라”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즐겨하시던 말씀입니다. 교내 곳곳에 글귀로 새겨져있는, ‘경희인의 노래’ 노랫말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경희 건학의 달인 5월, 이 친숙한 설립자의 가르침이 많은 경희인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되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개교 68주년을 맞는 감회가 특별한 까닭입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설립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윤리가 삶의 현장의 생활규범으로 뿌리 내린 세상입니다.

배려와 공감이라는 인간 존엄의 가치가 문화 규범으로 자리 잡은 문화세계이며, 또한 그 세상은 피부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크고 작은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인류의 공동체 사회입니다.

설립자께서는 우리 경희인들이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되어 인류사회를 이 위대한 인간의 문화세계, 인류의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인간의 길, 인류의 길을 찾아 나선지 어언 68년, 이제 경희가 가는 길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오토피아 문명의 대로가 되었으며, 경희는 사학의 명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경희가 이룩한 지난날의 빛나는 성취는 경희의 자량이며 경희인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경희는 그동안의 성취를 ‘학문과 평화’의 역사와 전통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전환의 격류를 맞아 기후문제, 불평등, 폭력, 난민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구 의제에 대해 학문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희의 이 새로운 도전은 21세기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경희 역사의 새 지평을 열리라 확신합니다.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경희와 경희인의 빛나는 성취를 축하하면서, 2017년 개교기념일을 맞은 감회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교 68주년을 경희인 모두와 함께 경축하는 바입니다.



※ 교수회의의 경우 사정에 의해 기념칼럼을 보내오지 못했기에 알려드립니다. 각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를 꿈꾼다



김종현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우리대학 역사 68년에서 첫 번째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감격이지만 필자의 시선은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놓은 노동관련 공약에 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신선한 것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이라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을 선언한 이후 ‘노동이사제’라는 말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노동이사제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과결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사회의 정규멤버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보편화된 유럽 지역은 물론 미국 등에서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교 68주년을 기념해달라는 청탁 원고에서 굳이 노동이사제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실천이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역

할을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대학의 역사를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시와 이행’, ‘책임과 권한’이 철저하게 이분화돼 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조직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대학 발전에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최근 각종 정책 배경에서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압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당국이 지시하고 교직원 은 무조건 따르는, 권한은 대학만이 가지고 교직원은 책임만 지는 경직된 구조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요하게 될 변화의 골자라기라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시 노동이사제다. 노동이사제에서 기대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이다. 또,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은 유연성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최소한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리대학은 68주년을 넘어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70년에 걸맞는 아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다른 대학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멋진 대학이 되길 기대한다.

68주년? 당연히 축하한다.

구성원이 배제된 비민주적 대학 운영, 68주년엔 끊어냅시다



권예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언론정보학 2010) 회장

2017년은 경희대학교의 68주년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역사로는 107주년을 맞는 해이고,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장미대선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권과 민주주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에도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PACE21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청소년노동자 직고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정책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한 본부의 낙관과는 다른 관점으로 경희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자랑스러운 경희를 이야기 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퇴행을 목격하는 듯합니다. 수강신청 대기순번제의 일방적 도입, 유학생 등록금 인상, 재수강제도 개편안 통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행정처리부터 완료된 미래창조소

쿨, 약속과 다른 공사로 인한 운동장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소통이 아닌 통보〉, 〈논의 없는 TF운영〉, 〈상명하달 식의 정책추진〉이라는 우리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이 있습니다.

대학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모르게, 의견수렴 없이 본부의 의지만으로 정책들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본부의 보고체계 속에서만 논의되고, 학생들에게는 최종결정만 통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반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본부와 학생의 입장 차이일 수도 있으며, 구성원들이 배제된 행정 구조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대학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우리대학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주인의식은 경희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학생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경희를 위해 학내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총학생회도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학생은 ATM이 아니다



허문천 총유학생회 (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회장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유학생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학교는 전년대비 7% 인상으로 서울권 대학 중에서 인상 퍼센트가 제일 높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였다. 인상 후 마련하였던 프로그램과 복지 정책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태도는 기숙사비에서도 나타난다. 세화원 기숙사는 내국인 학생은 한 학기 약 80만원, 유학생은 약 100만원이다. 더 많은 기숙사비를 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똑같다.

결국 학교는 유학생을 ATM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유학생들한테서 뺏으면 되기 때문이다.

매년 유학생 수는 증가되지만 이

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없고 유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희대학교의 입학 기준은 다른 서울권 대학에 비해 낮아서 중도포기율은 더욱 높다. 학교 측은 몇 년째 해결해야지 라는 말만 할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유학생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학생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인상된 등록금을 유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장학금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 수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유지하면 수준 미달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다. 이는 경희대학교를 유학생 중도포기율이 높은 대학으로 만드는 길이다. 유학생 등록금이 아닌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꿈과 미래를 위해 유학을 선택했고 그 꿈을 이룰 기회와 지식을 경희대학교라는 명문대학에서 얻으려 하였지만 결국 학교 측에서 준 것은 차별이다. 유학생은 학교 측이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ATM이 아니다. 우리학교의 미래를 위해 학교 측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경희의 역사와 미래



진도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스페인어학 2011) 회장

경희대학교가 1949년 설립된 이후 6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8년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경희대학교의 제49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본 기고문을 쓰게 돼 애교심과 더불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모교 석사 출신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최초로 모교 학사 출신이신 문재인 동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기념할만한 해가 되었음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경희대학교는 2017년 대학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의 아시아대학평가에서 3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화를 위한 캠퍼스를 세운 대학답게 ‘국제화’ 부면에서는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인지도가 외국에서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집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에 선정돼 ‘휴머니티스 칼리지’의 가르침과 함께 문·이과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인 모교 체육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완공과 함께 학생들 간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미래창조스쿨’, 학교와 기업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산학협력관’의 신설은 경희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68년간의 발전에는 앞에서 이끌어 주신 수많은 원로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모교 재학생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교직원 여러분, 정·재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밝히고 계신 선배들, 그리고 함께 학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노력과 화합의 시너지로 경희대학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동문들과 재학생 간의 교류강화, 모교와 학생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소통 증진과 더불어 저희 국제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는 경희대학교의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